즐기자 광주 맛보자 5味

◀광주를 품은 '어머니산'

무등산은 도심 10km 이내, 인구 100만 이상을 끼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산이다. 광활한 초원의 몽골, 사막의 나라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 '푸르른 산이 귀한'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무등산을 추천한다. 무등산에서 색다른 자연을 만끽하길 바라면서….

◀ 대인시장 예술체험

대인시장은 왁자지껄한 사람내음과 예술이 어우러진 곳이다.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리는 대인야시장에서 전통시장의 맛과 예술 멋을 체험하자.

〈광주일보 자료사진〉

눈이 즐거운 젊은 문화도시

젊음 넘치는 충장로·밤이 즐거운 대인夜시장

도시 속 국립공원 무등산에 민주화 성지까지

광주는 젊다. 그래서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특히,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광주를 찾으면서 빛고을 광주는 더 젊고 문화도 풍성해졌다. 하지만, 5·18민중항쟁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 광주의 따뜻한 속정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광주일보 U대회 특별취재단은 빛고을 광주의 '속살'과 '속정'을 느낄 수 있는 명소 5곳을 뽑아 소개한다.

◇젊음의 거리 '충장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광주를 만끽하고 싶다면 충장로를 거닐어야 한다. 충장로는 광주의 중심이자 젊음의 거리다. 그래서 '광주의 명동'으로 불린다. 충장로 1가에서 3가까지는 대형패션몰, 의류매장, 엑세서리점 등이 즐비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U대회 기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는 K-POP 공연이 열린다. 개성 있는 카페들이 모여 있는 황금동 카페 골목, 시끌벅적 구시청사거리에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에너지가 넘친다.

충장로 일대에 설치된 '광주 폴리'로 통칭되는 건축물들도 이색 볼거리 중 하나다. 광주 폴리는 도심 재생 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원래는 도시를 상징하는 'Urban'과 장식용 건물을 뜻하는 'Folly'를 따 '어번 폴리(도시를 상징하는 건물이나 건축물)'라고 했으나 광주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 폴리'로 명칭을 바꿨다. 이 곳은 이벤트나 문화 공연의 무대로 활용되기도 한다.

◇세계 유일 대도시 품은 '무등산'

무등산의 매력은 도심에 있다는 것이다. 도심 10km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을 끼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산이다. 산이 없는 나라의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국립공원 무등산은 '등급을 매길 수 없어 무등이요, 모두가 평등하니 무등이라'고해서 광주의 어머니산으로 불린다. 서쪽에서 저녁노을이 비치면 수직절벽이 빛을 발하는데 '빛고을 광주'란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무등산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즈넉한 옛길을 이용하는 것이 운치 있다. 선조들이 걷던 길을 복원한 무등산옛길은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쉬엄쉬엄 산책하듯 걷기 좋다. 옛길은 총 3개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마다 2~4시간 걸린다. 3구간은 역사길과 나무꾼길 두 개 코스로 나뉜다. 천왕봉 정상 가까이에는 서석대와 입석대가 있다. 국내 유일의 네모 모양의 주상절리로, 천연기념물이다. 무등산 자락엔 증심사·원효사·규봉암 등 사찰이 있다.

◇별별 장터 '대인夜시장'

대인예술시장은 시장 상인과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장이다. 때문에 신구의 문화가 묘하게 어우러져 광주 특유의 따뜻함을 전한다. 과하지 않은 소박함으로 은근한 감흥을 준다.

7월 둘째 주 대인예술야시장 '별장'은 광주 U대회 특집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대인시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시민 셀러들이 다양한 아트상품과 수공예품으로 예술의 거리를 수놓고, '프로젝트 블루', '센치한 버스', '바닥 프로젝트', '우물안 개구리' 등 젊은 뮤지션들이 거리 공연장도 꾸민다. 대인예술야시장을 찾는 외국인 선수와 관광객들을 위해 곳곳에 영문 리플렛을 배치하고, 주요 거점에서 영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페와 골목의 만남 '동명동 카페거리'

동명동은 한때 광주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로, 뭇사람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그런 동명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색 카페들이 줄지어 입점하면서 문화 명소로 화려하게 변신 중이다.

동명동 카페 거리는 서울 못지않은 감각적이고 개성 있는 카페들로 넘쳐난다.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 만점의 카페 인테리어는 물론 로스팅 카페부터 갤러리 카페, 북카페, 고양이 카페, 한옥 카페까지 다양한 콘셉트의 카페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한적하고 운치 있는 골목길이 멋스럽게 조화를 이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리다. 일부러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많다.

◇민주화의 상징 곳곳에

광주시내 곳곳에는 1980년 5월 민주화항쟁의 흔적이 남아 있다.

민주화 성지로 알려진 광주의 대표적 상징은 국립 5·18민주묘지다. 이 곳엔 5·18민중항쟁 당시 숨진 718명의 영령이 잠들어 있다.

또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 광장, 옛 시외버스 터미널, 5·18 최초 발포지인 광주고 앞, 금남로, 전남대병원, 조선대학교, 광주MBC 옛터 등은 이들의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답사코스다.

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입이 즐거운 광주 음식

광주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맛'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광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광주의 음식'은 좋아하고 칭찬한다. 비결은 광주 인근의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먹을거리로 요리하기 때문일 거다. '광주 오미(五味)'인 송정 떡갈비, 유동 오리탕, 남도 한정식, 무등산 보리밥, 김치를 소개한다. 마음껏 입과 눈을 즐기시라.

고소한 내음새~ "녹는다 녹아"

▲**송정 떡갈비**=KTX 광주송정역 인근 광산구청 주변은 30여년 전부터 떡갈비 거리로 유명했다. 이 곳이 송정동 향토 떡갈비거리다. 갈빗살에 여러 부위의 고기를 섞어 다진 다음 갖은 양념을 발라 구워낸 떡갈비의 냄새가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산·들·바다가 모여 상다리 휘겠네

▲**남도 한정식**=남도의 맛과 멋, 인심이 집약된 상차림. 산과 들, 인근 바다에서 나는 모든 먹을거리가 한데 모여 있다. 광주 한정식의 핵심은 남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젓갈이다.

담백하고 개운한 여름 으뜸 보양식

▲**유동 오리탕**=오리와 들깨가루, 신선한 미나리를 듬뿍 넣어 맛이 개운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며, 광주의 으뜸 보양식이다. 광주역 근처에 유명한 '유동 오리탕 거리'가 있다.

시원한 동동주와 함께 비벼먹는 재미

▲**무등산 보리밥**=제철 채소로 만든 신선한 나물에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벼 먹는 보리밥은 입맛을 돋운다. 동구 지산동 지산유원지 일대에 '무등산 보리밥 거리'가 형성돼 있다. 무등산 등반 후 시원한 동동주와 함께 하노라면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다.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감칠배기

▲**김치**=다양한 젓갈을 활용한 맛이 일품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남도 김치는 각종 양념을 듬뿍 넣어 매콤하고 맛있기로 정평이 났다. 10월이면 김치축제가 열릴 정도로 광주 김치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